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친환경·소득 증대 효과

완도군, 상품성 없는 '미역·다시마 꼬리' 전복 양식장 무상 보급 지난해 8억 투입 2619t 공급...해양 오염 줄이고 어가 경비 절감

완도군이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사업으로 호평을 얻고 있다.

완도군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사업은 매년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사업을 추진해 어장 환경 보호, 어민 소득 증대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는 사업이다.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시작해 매년 8억 2000여만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이다.

완도는 6990여가(2만6559ha)에서 해조류를 양식하고 있으며, 연간 해조류 생산량은 51만 1000t, 그중 미역과 다시마는 42t을 차지한다.

미역과 다시마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남은 뿌리와 줄기 등이 바다에 버려지면 바닷속에 퇴적되어 용존산소 농도가 낮아져 해양오염을 야기하게 된다.

이에 군에서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고자 상품성이 없는 미역, 다시마 꼬리 등을 수매한 다음 보관해두었다가 해마다 전복 먹이가 부족한 시기인 가을철

(9~10월)에 어가에 공급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각 읍면 어촌계에서 해조류 부산물 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11월 말까지 균등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수협 및 (사)한국전북산업연합회 등 유관 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위탁 운영 중이며, 수매부터 가공, 공급까지 연계하여 추진 중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5월부터 6월에는 미역, 다시마 등을 2544t 수매해 1711개 어가에 627t 공급하고, 다시마 꼬리는 75t을 수매해 378어가에 공급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사업은 해양오염 방지뿐만 아니라 해조류 부산물을 전복 양식 어가에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어가 경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사업을 추진 중인 완도군이 해상에서 해조류 부산물을 수매해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진도 주요 등산로 위치 파악 빨라진다

260개소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재난·사고시 신속 구조

진도군이 주요 등산로 등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했다.



'국가지점번호'는 등산로·하천 등 건물이 없는 비주거지역에서 등산객이나 자전거 이용자 등에 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좌표다.

전국을 가로, 세로 10m씩 격자형으로 구획을 나누고 구획마다 한글 2자리와 숫자 8자리로 구성된 고유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특히 재난·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시 인근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를 소방서나 경찰서에 알려주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한 출동으로 인명구조 등 조기 대응이 가능하다.

현재 진도군은 임회면 여귀산 일원 주요 등산로 등 총 260개소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해 완료해 등산객과 관광객 등에게 조난·응급상황 대처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군은 매년 예산을 추가 확보해 위험 지역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추가·설치할 계획이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등산이나 야외활동

등 중가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즉시 모를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지점번호를 적극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목포해수청,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1일 생활권·2년 연속 적자 항로 대상 사업자 공모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성수)이 섬 주민의 원활한 해상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3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지원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에서 지원되는 항로는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항로 중 1일 생활권 항로와 최근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여 해상교통 단절이 우려되는 항로이다.

1일 생활권 구축 항로로 선정될 사업자는 운항 결손액의 100%가 지원되며, 2년 연속 적자인 항로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운항결손액의 최

대 70%까지 지원받는다.

이번 공모에 지원할 여객선사는 14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추어 목포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에 접수하면 된다.

목포해수청은 현재 준공영제 항로로 가거도-목포항로와, 목포-상대(서리) 항로를 지원하고 있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섬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선사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2023년 준공영제 확대지원 항로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해남 남도광역추모공원 친환경디자인 우수상

자연과 조화...6년 연속 선정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이 친환경디자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남군은 남도광역추모공원이 제7회 전라남도 친환경디자인상 공모전에서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해남군은 2회 공모전부터 7회까지 6년 연속 수상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2019년 4월 개원한 남도광역추모공원은 8만여㎡ 부지에 4기의 화장로와 봉안당 2개소, 자연장지, 유해독산을 갖춘 종합적인 장사시설로서 해남, 진도, 완도 3개군 연계협력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남도광역추모공원은 전체적으로 인공요소를 최소화한 공간구성과 자연과 잘 어울리는 안식처 같은 분위기를 제공해 편안함과 실용성 및 조화성을 두루 갖추었다. 콘크리트 옹벽이 전혀 없는 곳으

로 자연스런 디자인을 반영하고 이질감을 최소화한 실용적인 설계로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친환경 디자인 장지로 조성했다.

이를 통해 당초 목표를 초과한 연간 3000기 정도를 화장하는 등 활용도가 매우 높고, 경건한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얻었다.

또한 개인묘역 조성에 비해 효율적인 묘역관리로 난개발 방지는 물론 자연훼손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남도광역추모공원은 지속적인 화장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편안한 분위기 조성해 서남권 장례문화를 선도하면서 타 지자체 귀감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친환경 디자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16만 인파, 땅끝해남 맛과 멋에 취한 3일

해남미남축제, 사고 없이 성료 요리 부스·농수산물 체험 등 다채

해남미남축제가 대규모 인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축제를 선도하며 단 한건의 안전사고 없이 성료했다.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3일간 '오감만족 미식여행'을 주제로 두륜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열린 제4회 해남미남축제에 16만 50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축제는 최근 이태원 참사를 애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기간을 일주일 연기를 치러졌으며, 대규모 축하공연을 모두 취소하고 체험과 관람 위주로 진행됐다.

특히 관람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단 한건의 안전사고 없이 성공리에 치러짐으로써 안전한 축제를 선도하는 축제 방식으로 모범적인 선례를 보여주어 호평을 받았다.

군은 수차례에 걸친 사전 안전점검을 비롯해 경찰, 소방, 보건 등 유관기관, 지역 자원봉사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축제 기간 내내 빈틈없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추진해 성숙한 축제 문화의 기준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다.

올해 해남미남축제는 음식축제로서 정체성을 강화해 지역내 전문 음식점이 제철 해남음식을 선보이는 미남푸드관과 해남의 농수산물로 만든 주전부리관을 비롯해 향토음식 연구가와 함께하는 요리교실인 미남쿠킹클래스, 해남 로컬 식재료를 이용한 추억의 구이터 등이 운영됐다.

또 해남 515개 마을에서 재배한 배추를 이용한 세계인과 함께하는 515 김치 비빔행사, 해남의 쌀과 김, 닭으로 만든 2022인분 닭장떡국 나눔 행사



명현관 해남군수가 해남미남축제 현장을 찾아 닭장떡국 나눔 행사를 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는 해남을 대표하는 농수산물을 활용한 음식 만들기 행사로 눈길을 끌었다.

축제는 1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제2회 해남미남 전국요리경연대회, 전국웰빙 레크레이션 경연대회, 해남군 평생학습축제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함께 고무마담기, 전복시식 등 농수산물 체험 행사도 풍성히 열렸다.

두륜산을 물들인 오색단풍과 함께 국화 꽃 축제도 열려 만추의 정취가 가득한 가운데 모처럼 나들

이에 나선 관람객들이 줄을 이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질서를 지켜가며 축제를 즐겨주시는 전국에서 오신 관람객과 군민들께 감사드립니다"며 "해남미남축제를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기회이자 안전한 축제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전국 축제 개최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돌봄 노동자 환경개선 필요" 오미화 도의원 행정감사서 지적



전남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가 민간위탁 기관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은 점과 시군의 돌봄 노동자들이 사용할 휴게공간의 부재 및 대체인력 확보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됐다.

오미화(진보당·영광2) 전남도의회 의원은 최근 열린 보건복지국 행정감사에서 "전남도가 민간위탁하는 기관들이 몇 개나 되는지와 중복·겸임과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공적 재원이 들어가는 돌봄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또 "시설에서 근무 중인 노동자는 설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재가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음·면 단위로 유희공간을 활용한 거점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바란다"고 주문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신안군민 오랜 숙원 '소방서' 개청



섬 주민 안전지킴이 신안소방서가 문을 열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최근 개청한 신안소방서는 신안군이 무상으로 제공한 임대면 승봉리 17번지 소재 5500평부지에 76억 3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지난 8월 완공된 3층 건물로 다목적강당과 식당, 샤워실 등이 갖추어져 있다.

신안소방서는 소방행정과, 대응구조과, 예방안전과 등 3과 6팀 2안전센터 1구조대 7개 지역대로 소방공무원 159명이 신안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됐다.

특히 넓은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장비 47

대를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신안은 목포소방서 지도와 안좌 119안전센터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해 왔다.

박연호 신안소방서장은 "신안군의 오랜 숙원 사업인 신안소방서가 개청함에 따라 군민 모두가 더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으로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전통시장과 공사장, 공동주택 등 소방대상물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다문화가정과 외국인근로자, 유사시 피난 약자들을 위한 화재취약계층 대응을 강화 할 계획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